개신교계 '수진사 방화' 릴레이 참회

종평위 '훼불' 비판에 기독교교회協 이례적 사과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가 "더 이상 개신교계에 의해 반복돼 온 훼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불교계를 향한 개신교계의 공식 사과행보가 이어져 주목된다. 그동안 훼불과 관련해 일부 목사 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사례는 있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주류 개신교계가 일부 신자들의 왜곡된 종교관을 인정하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진사 방화 사태가 지난 세월 수없이 반복돼 온 개신교계 신자 훼불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고 진정한 종교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이하 교회협의회)는 11월 3일 '남양주시 수진사 방화사건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교계를 향한 공식 사과는 물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종교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그 상징을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웃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여 가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떠한 신앙도 이웃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협의회는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며 "한국 기독교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조건 없이 열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행태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본지와의 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진사 방화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독교 광신도의 고의적인 방화로 잿더미가 된 수진사 산신각.

개신교단체 · 목사들 내부자성
평화나무, 복구 모금운동 계획
"종교 간 평화 새 전환점 되나"

김용민 이사장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예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은 불자님이셨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합당한 모범을 보인 이들 역시 불자님들이었다"며 "기독교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 즉 극진한 사랑과 용서의 빛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훼불 사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이자 테러"라며 "이제는 방관하지 않겠다.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 첫발로 김 이사장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서울시에 기부금모집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범기독교인을 상대로 수진사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겠다"며 "또 훼불범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김천 개운사 방화사건 당시 복구모금을 펼쳤고, 이후 서울기독대 교수직에서 파면돼 고충을 겪고 있는 손원영 교수 역시 10월 28일 SNS에 '불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함' 제하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손 교수는 11월 3일 재차 호소문을 발표하고 특히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교인들과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잘못 교육한 죄, 이웃종교인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야 할지 제대로 안 가르친 죄, 심지어 이웃종교인을 폄훼하고 모욕하도록 은연중 강요한 죄를 참회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함께 종교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며 "이웃종교인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벗이요 형제이자 자매"라고 강조했다.

개신교계의 잇따른 사과입장 표명과 관련, 이제는 개신교 내부적으로 교리의 전파 과정에서의 배타성을 인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반복돼 온 개신교계 신자의 훼불 사건에 대해 개신교계가 '일부 신자의 행위'라는 인식에서 한 발 나아가 공식적인 참회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진사 방화사건이 개신교계 내부의 인식 변화는 물론, 왜곡된 종교관에 의한 훼불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사례가 종교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종평위는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종평위가 성명서에서 특정종교계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일침을 둔 것은 이례적이다. 종평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인한 방화 피해는 그동안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해 왔다"며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왔지만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앞으로 훼불 사건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진료소 건립 '청신호'

백천재단 3일 기금 3억원 쾌척
사찰 內 지역민 의료공간 마련
전국비구니회, 운영 동참 의사

조계종이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핵심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3억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경내에 진료소를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백천문화재단은 11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분황사 진료소 건립기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는 부처님 정각(正覺) 성지에 한국 사찰이 낙후돼 성지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한국 전통양식의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원행 스님의 발원에 부산의 설매 · 연취 두 화주자가 선뜻 거금 50억 원을 쾌척했고, 백천문화재단에서 진료소 건립 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불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성 위치는 인도 물라상가의 부다가야 보유부지로 건축면적은 총 1,302.88㎡, 연면적은 총 1,741.56㎡다. 부지에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 3동이 들어선다. 대표 건물인 대웅전은 단층으로 면적 433.84㎡, 연면적 262.26㎡으로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한국 사찰 건축물 중 보기 드문 회랑식 법당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강하고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부다가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공간인 보건소는 진료대기를 위한 넓은 로비와 복도를 중심으로 유동적 진료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규모는 연면적 514.85㎡으로 1층에는 진료소와 환자 대기를 위한 로비가, 2층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2인 숙소 5개실이 들어선다.

기금 전달 직후 원행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 성지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사찰을 짓기로 원력을 세웠고, 사찰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소를 병설로 운영키로 했다"면서 "백천문화재단에서 진료소 건립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도성 백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조명하 이사장이 직접 기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참여하지 못했다. 양해바란다"면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큰 불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금 전달식에 배석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을 부다가야 분황사 진료소에 파견해 의료진을 돕도록 하겠다"고 부다가야 분황사 진료소 운영에 참여할 뜻을 내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백천문화재단은 이날 구족계 수지 장삼 지원금 2790만원을 종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전법교화 승가결사체 지원

11월 20일까지 신청양식 제출
승려연수 50점 · 1천만원 지원
장학위원회, 장학승 지원 공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승가결사체의 2021년도 전법교화활동 지원을 위해 연수인증 및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0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될 경우 참여스님에 대해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을 부과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해당 스님이 연 2회 이상 회의를 하고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을 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승가결사체에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가결사체는 스님 4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전법교화를 목적으로 구성, 활동하는 비영리 임의단체다.

교육원이 인정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은 △어린이 · 청소년 · 교도소 재소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와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 · 선무도 · 지하 등 생활지도 활동 등이 대표적이며, 이에 준하는 활동이면 연수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조계종 홈페이지 승려연수 인증 신청서를 비롯해 단체현황과 회원명부,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등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교육원 연수팀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로 발표된다. 02)2011-1817

한편 조계종 장학위원회도 종단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승을 선발, 지원한다. 종단 장학승은 조계종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가운데, 국내 또는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들, 또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된 사찰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02)2011-1818 송지희 기자

